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1204
----------	------

제안연월일: 2006. 7. 5.

제안자: 나승혁의원의외 6인

1. 주 문

창신두산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시 우리구 관내 및 가까운 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있는 덕수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관내 동성중학교 및 근거리 소재 대광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정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롯데캐슬 등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종로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창신동은 동덕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교육 중심지로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으며, 창신두산아파트 주민의 초등학생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동성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광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구에 위치한 덕수중학교로 배정받고 있음.

복잡한 도심을 지나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 불편과 빈번한 안전사고로 일부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든 창신동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실정임.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창신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시 관내학교 및 근거리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정범위를 확대한다면 우리의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참고 규정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종로구는 조선건국 초기부터 600여년 동안 역사와 문화의 정통성을 이어왔으며, 과거 경기고등학교·서울고등학교 등 많은 명문학교를 보유하고 서울 교육의 중심지로 자부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강남개발과 더불어 종로구에 있던 우수한 학교들이 강남지역 등으로 옮겨가면서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종로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19만명 이던 인구가 2006년 현재 16만 7천명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롯데캐슬 등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종로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창신동 또한 동덕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교육 중심지로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한 현실입니다.

창신두산아파트 주민의 초등학생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동성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광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중구에 있는 덕수중학교로 배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 불편과 빈번한 안전사고로 일부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든 창신동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및 가까운 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있는 덕수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창신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시 관내학교 및 근거리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정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6. 7.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